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7, 도서 조사, 주요 구조적 관계 및 질문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도서 조사, 주요 구조적 관계 및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차적인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조 관계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일차적 관계와 보조적 관계의 차이점을 지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본 관계는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들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잠언에서 대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신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의 대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결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자체로 기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 관계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 관계와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보조관계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차관계와 결합하여 일차관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보조관계가 단지 자료의 배치, 배열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결감을 다루지 않습니다. 즉, 그것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각 연결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 관계에는 감각 연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조의 관계에는 차이 또는 비교의 연결감, 유사성 또는 특수화의 연결감, 특이성의 연결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조 관계 내에 내재된 그런 종류의 연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 구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강화되는 일차 관계 내에 내재된 감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관계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차 관계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이끈다.

그것이 사용되는 보조 관계에 의해. 이제 여기서 언급할 이러한 보조 관계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료 블록 측면에서 특정 요소를 교환하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사이의 교대, 앞뒤로 이동, AB, AB 종류의 배열에서 두 가지 사이의 교환 또는 교대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학자들은 때때로 이것을 줄무늬 구조, AB, AB, 교대, 재료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책 수준에서의 교환의 예는 미가서의 교환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와 형벌의 선언 블록과 남은 자의 회복에 관한 선언 블록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1:2b부터 2:11까지는 죄와 형벌이 있고, 2:12부터 13까지는 의로운 남은 자의 회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3:1b부터 12까지에서 그는 다시 죄와 형벌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에서 그는 남은 자들의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6:1b부터 7:14까지 그는 죄와 형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책은 남은 자의 회복을 다루는 마지막 블록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AB, AB, AB. 물론 여기서는 상호 교환이 대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은혜롭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결심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 블록의 교대는 저자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형벌,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의 남은 자들의 회복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비가 실제로 강조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그것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가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상호 교환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앞뒤로 계속되는 이 상수는 작가가 실제로 이 블록을 서로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이점의 특정 차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 관계의 또 다른 유형은 삽입(intercalation)입니다.

이는 다른 문학 단위 중간에 하나의 문학 단위를 삽입하는 것과 관련될 때 발생합니다. 이제 서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소위 바울의 여담은 삽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사 자료에는 삽입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를 쪼개다가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삽입의 힘입니다. 그런 삽입이 있을 때, 그것은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머리를 긁적이며 여기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 가운데 특 튀어나온 이 이야기는 주변의 이야기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빛을 발하며, 그 주변의 이야기는 그 안에 내려앉은 이야기를 빛나게 합니까? 즉, 서로를 밝히는 것입니다. 삽입의 예는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소위 요셉 이야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실제로 요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38장에는 요셉의 형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37장에서 시작하여 39장에서 계속되고 50장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독자는 잠시 멈춰서 여기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 이야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37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경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했으나 그가 죽었습니다.

레위인의 관습에 따르면, 언약백성을 이어가기 위해, 죽은 형의 뒤를 이어 그의 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가족의 관심과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언약 백성의 계보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곧 그들의 후손을 만물의

별과 같이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세상 해변의 모래와 같으니라.

형을 위해 부부의 제사를 지내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형이 들어왔을 때, 형을 하지 않으려고 땅에 씨를 쏟아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멸절시키셨느니라. 다말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매우 염려했고 특히 유다가 자신의 다른 아들을 다말에게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실제로 나가서 창녀처럼 변장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창녀와 동침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여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녀를 부양하여 혈통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요셉 이야기에서 정확히 어떻게 기능하는지, 즉 여기에서 그의 형 유다로 대표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대조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음행으로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기를 거부했지만, 유다는 창녀라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와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요셉이 행한 일, 즉 여기 39장부터 50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신 일을 통해 그분은 언약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38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39장부터 50장까지에서 요셉의 순종과 신실함과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언약의 계보가 계속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38장에서 유다와 형제들의 불성실과 그들의 성실하지 못함과 음행을 통하여 언약의 계보가 계속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유다와 다말을 다루는 삽입된 자료가 요셉의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조명되는지,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싼 요셉 이야기와 대조되는 삽입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24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5장, 사무엘상 25장을 언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전체 부분, 즉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과 사울 사이의 싸움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령이 여호와께로부터 사울에게 임하고, 물론 사울은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이자 실제로 그를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장들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물론 각 경우에 탈출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중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반복적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바로 25장이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천박한 버릇없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종들을 수치스럽게 대했으며 고대 근동 문화의 핵심인 환대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노하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곧 그와 함께 있는 용사들과 함께 올라와서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멸하려고 쫓으리라.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만나 다윗이 나발에게 의도한 파괴적인 행동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25장 32절에서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을 죽이려고 계획한 일에서 다윗을 돌이키게 한 후 여기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나를 만나도록 너를 보낸 사람.

받을지어다 너희가 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어서 빨리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아침까지 나발에게는 남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가라 하니라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의 이 부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윗이 사울을 쫓고 사울에게서 탈출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능숙한 이야기꾼인 사무엘상 작가가 25장의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와 주변 자료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25장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나발 이야기가 나오고, 나발 이야기 바로 다음 장인 26장에서도 다윗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은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촉구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은 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긴장을 풀고 있는데 실제로는 24장에서 그가 굴에서 그를 만나고 26장에서 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촉구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법 적 연결도 참고하십시오.

여기 24장에서 그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의롭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을 갚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악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25, 21절에서 다윗이 나발에 관해 말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헛되도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느니라 사울이 다윗에 관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을 갚았으나 나는 당신에게 악을 갚았습니다.

다윗은 25, 22절에서 나발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나발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26장에서 사울이 자고 있는 동안 다윗이 진영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26, 21절에서 내가 잘못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을 돌려보내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느니라. 보라, 이것을 주목하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심히 큰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사울은 다윗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5:25 에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 대해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 주여 이 악한 사람 나발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이 악한 사람 나발은 그 이름과 같이 그도 그러하니이다 그런데 바보라는 뜻의 나발은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그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25장 25장 36절에 나오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일종의 일회적인 대사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 나발과 다윗 사이에 비교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그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발, 그 사울, 그리고 물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나발이 바보인 것처럼 사울도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발에게 갖고 있는 어리석음의 종류는 사울의 성품, 주변 장들에 나오는 사울의 어리석음 등을 조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강조되는 점은 25장이 여기에 있는 것에서 제가 생각하는 실제 요점입니다. 다윗은 다윗이 유혈죄를 짓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발을 죽이려는 그의 의도.

이것은 다윗과 사울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를 통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적하기를 거부했다는 강력한 암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번에 걸쳐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하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격려받았을 때, 죄를 가져오고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유혈죄를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이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하여 그 결과로 사울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유혈죄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입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음,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급할 거의 마지막 것은 교차교차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Chiasm은 요소가 역순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AB에서 중간 요소가 있는 경우 C, B 프라임, A 프라임 순서입니다. ABBA 또는 ABCBA.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흔한 특징입니다. 매우 인기가있었습니다. 교차교차(Chiasm)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책 전체의 수준에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교차가 작동하려면 실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매우 광범위한 자료에 퍼져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만큼 명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전체 책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더 작은 단위로 찾을 수 있는 위치를 기록할 것이며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고 그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그리고 20:19, 실제로는 20:16에도 거의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꼴찌 되고, 먼저 꼴찌 되고, 꼴찌 먼저 되는 자가 많느니라. A, B, B, A. 그리고 또 19:30에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됩니다.

A, B, B, A. 이제 이것이 실제로 19:30과 20:16의 두 진술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대표하는 집주인이 포도원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다시 오후 3시, 그리고 다시 오후 3시에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다시 오후 5시에. 그리고 물론, 결국 그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려 갈 때, 그는 그들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비유와 관련하여 여기서 종종 간과되는 점은 결국 그분은 먼저 고용된 자에게 마지막으로 갚으시고 마지막으로 고용된 자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이 원칙은 실제로 비유 자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교차법에 따라 구조화됩니다. 고용되는 것은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되는 사람은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될 사람이 먼저 급여를 받고, 고용된 사람이 나중에 급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ABBA는 먼저 고용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되며,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이 먼저 급여를 받고, 먼저 고용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1930년과 2016년의 관점에서 보면 교차점 내에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먼저가 나중, 나중이 먼저, 나중이 첫째, 첫째가 나중, ABB 프라임, 여기에서도 A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이 구절에서 교차점에 교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대조의 전체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전형적인 인간의 정의 측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먼저 고용되어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 5시에 고용되어 하루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더위와 저녁 서늘한 때에도 그보다 더 많이 받고 또한 먼저 고용된 자도 먼저 샅을 받고 맨 나중에 고용된 자도 꼴찌로 받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기대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요점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정의를 이해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 inclusio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인클루시오(Inclusio)는 단위의 시작과 끝에서 동일한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여 실제로 브래킷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편에 나오는 개별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작은 책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그들은 원래 독립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사용하여 도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inclusio 와 관련하여 시편 10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 시편 104편이 더 좋습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는 권고와 권고로 시작됩니다.

시편 1절 35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이런 종류의 포함이 있을 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개입하는 자료가 괄호 안에 있는 구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입니다. 여기서 2절부터 34절까지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5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2절부터 34절까지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분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강력하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물론,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함을 표현하는 그분의 강력하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인한 인과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시편 104편은 inclusio 에 의한 실증과 인과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 포함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입증과 인과관계를 강화하고 강화합니다. 이제 inclusio는 실제로 해당 단위 전체의 주요 관심 사항(이 경우에는 시편이나 책)을 괄호를 통해 전체 단위로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물론 동기나 이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참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실제로 주요 관계는 조사되는 책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인 자료의 대부분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특하다면, 즉 실제로 의미를 담고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암시적 관계와 명시적 관계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암시적 관계, 명시적 관계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어를 가질 때마다 대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가질 때마다 당신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없지만 명시적으로 존재할 때 대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계는 명시적이기보다는 암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관계와 복잡한 관계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관계는 그 자체로 사용되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인과관계를 말해보자. 그러나 때로는 두 개 이상의 구조적 관계가 책 내에서 기능하는 방식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다른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는 이 책 내에서 한 관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복잡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몇 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잠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 또는 어리석음 사이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알다시피, 대조는 반복되기 때문에 재발을 말하지 않고서는 잠언에서 대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조를 가져오지 않고는 잠언에서 재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러한 관계 중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직접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즉, 그것들은 프로그램과 책 자체의 역동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관계와 특정 관계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더 일반적이며 더 구체적인 관계 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정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과관계의 재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피벗으로 인해 급진적인 반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피벗 이전의 자료가 피벗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특히 피벗 통로에서 이어지는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벗 앞에 있는 것과 피벗 뒤에 오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벗을 따르는 것은 피벗 이전의 것을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성은 인과관계와 대조의 반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인과관계와 대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요도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정확한 특정 관계를 식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의식적인 관계와 잠재의식적인 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일부 관계를 의식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에스더서의 중요성에 대해 에스더서의 저자가 구조적 관계 목록을 들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책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에스더서의 저자가 자신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피벗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아마도 의식하지 않았을지라도 결정성을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했고 이 형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고대 세계가 의사소통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물론 많은 교육은 비공식적이었지만, 고대 세계의 비공식 교육과 공식 교육은 모두 주로 수사적이었습니다.

주로 의사소통 방법과 매너, 관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의 교육과 관련하여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성 등으로 부르는 비교와 대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수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 작가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대인만큼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종류의 구조적 특징에 부여한 의도성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이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해 온 구조적 관계의 종류가 실제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사소통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시대, 그리고 사실 모든 형태의 예술에서 발견됩니다. 단순히 문학과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도 발견됩니다.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귀납적 성경 연구 운동은 John Ruskin의 매우 유명한 에세이인 작곡에 관한 에세이(Essay on Composition)라는 에세이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역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 마음의 구조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예술은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나 의사소통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을 항상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법 구조, 주어, 술어, 형용사 같은 모든 종류의 것들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잠시 멈추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 사고 과정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에 대한 깊고 구체적이며 주의 깊은 해석에 관해서는 문법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구조 분석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실제로 이것이 말하는 내용을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식과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구조적 관계를 식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는 책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과 가장 중요한 문제 또는 개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실용적입니다. 책 안의 개별 요소들은 서로, 책의 계획과 사상 내의 다른 개별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 내에서 조직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이며,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도 이 책이 개별 구절과 책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한 가지, 그것은 질문을 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문은 해석의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조 아래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실제로 책을 해석하게 되며, 이는 개별 구절과 책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문 조사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해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관찰과 긍정적인 사용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했듯이 모든 성경 주석은 구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어도 구조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BS는 구조적 특징을 라벨링하고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보다 의도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IBS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석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방법론적으로 더 반영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자료와 특정자료를 구분하는 도서조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책 전체에서 작동하는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 주요 구조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구조를 식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서 조사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질문 제기, 즉 우리가 확인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해석적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에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여기에 무엇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제 때로는 모달 질문(어떻게?)으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질문은 본질적으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작가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말되거나 행해졌는가,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함축적 질문입니다.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의미는 실제로 논리적 가정이나 파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확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확인한 자신이 전달한 내용을 작가가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무엇을 가정해야 하는가? 그의 의사소통 뒤에는 어떤 종류의 가정이 놓여 있습니까? 만약 그가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는 무엇을 가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암시의 한 유형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의미는 자연적인 파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는 또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여기서 제시한 것의 필연적인 논리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책의 한 구절을 실제로 참조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구조적 관계의 함축을 포함하지 않지만, 주장 뒤에 있는 가정과 주장의 필요한 논리적 파생물 모두 함축을 통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진술의 함축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1:1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지만 나는 그럴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좋아요.

저자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거나 주장하려면 그는 무엇을 가정해야 합니까? 그 주장 뒤에는 어떤 가정이 놓여 있습니까? 음, 한 가지 가정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논증이 없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가정한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별된다는 가정을 암시하는데, 이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의 가장 큰 주장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유대-기독교 전통 이후로 이슬람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기독교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이슬람은 유대교-기독교 이단 등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의 위대한 종교

중에서 실제로는 유대-기독교 종교와 아마도 이슬람교만이 이러한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암시된 가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유로우심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선재하신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창조물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와 함께 선재하십니다.

그것은 암시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문구에 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총명하시며, 목적이 있으시고, 활동하신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당 진술 내에 암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것은 가정이지만, 창세기 1:1에서 자연적으로 파생된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데 수고를 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의 안녕을 염려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파괴하거나 심판하실 특권을 포함하여 창조물에 대해 절대적인 특권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신정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고통과 괴로움 등을 허락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오래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 중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정당화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심판하고 멸하는

권세 포함)가 있다는 뜻이지, 그에게는 없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대답하기 위해.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요구할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유지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창조물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회복이 필요할 경우 창조물을 구속하거나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 책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다.

그 내용은 우리 책 1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적 질문, 합리적 질문, 암시적 질문을 순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질문은 결정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게 왜 여기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암시적 질문은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함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실제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은 실제로 해석의 작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석 작업의 기초가 될 질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러한 의미는 적용이라기보다는 해석적입니다.

이는 적용 가능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학적으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구절이 암시하는 것이 그것이 명백하게 언급하는 것만큼이나 그 의미의 일부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것이 적용 가능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해석적인 질문입니다.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축된 의미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러한 보조 질문이 최종 질문의 더 구체적인 형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문이 관찰된 내용에 대한 것, 질문이 정확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구조적 질문의 특정 방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는 관계가 채용되어 있으며 피상적인 것에 대해 창의적이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는 연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책 조사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목적은 책 전체에 대한 해석의 결론, 또는 최소한 책 내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책의 메시지를 종합한다는 점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책. 대부분의 책, 특히 모든 크기의 책의 경우 도서 설문 조사와 도서 설문 조사에서 제기한 질문에서 이러한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에 걸쳐 구절의 해석을 진행하면서 다시 돌아와 종합을 통해 도서 조사 시점에서 제기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관한 수업에서 우리는 학급으로서 사도행전 전체의 구절을 해석하고, 마지막 과제는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주요 구조적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것이 도서 조사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짧은 책, 즉 일반적으로 4장 이하의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책을 즉시 해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책의 길이가 충분히 짧다면 이를 활용하여 책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관찰된 구조적 관계에 대한 통찰력과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론가들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관찰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놓칠 수 있는 관찰의 측면이나 차원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을 함의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핵심 구절이나 전략 영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책 속 구절, 주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어 책 전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 속 구절은 무엇인가? 자,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작업할 때 실제로 특정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구절로 간주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납적 접근 방식에서는 책의 핵심 구절, 전략적 구절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책 자체의 역학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는 방식은 주요 구조적 관계를 통해 주요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관찰한 각각의 주요 구조적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표현된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1은 특정화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조적 관계가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결정하거나 가리키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책 자체, 프로그램 및 책 내의 역학이 책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즉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책 내의 주요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러한 주요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해당 범위 내에서 적은 수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핵심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의 많은 부분이 그 아래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고 소수로 유지하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간략하고 개수가 적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이러한 핵심 구절에 집중하고 이를 책 전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핵심 구절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구조적 관계는 핵심 구절과 전략적 영역을 더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가 있는 경우 클라이맥스 구절은 클라이맥스의 구조적 관계를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또는 중요도가 있는 경우 피벗 통로가 중요도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른 구조적 관계로 인해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해당 관계로 표시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책 전반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재발입니다. 이 경우 재발의 한 발생이 이 재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일 수도 있고, 이 특정한 사건이 모든 것의 재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결정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의 구조적 관계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전략 영역의 목적은 책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확인한 후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이 핵심 구절이 책 전체를 어떻게 밝혀 주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핵심 구절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는 책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책의 주요 측면을 공개하고 실제로 책의 구조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이거나 전략적입니다.

즉, 구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식별하는 경우, 이 책에는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지만, 제가 확인한 주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요 구조적 관계를 놓쳤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문 키를 고려했기 때문에 주요 구조적 관계를 식별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는 자신이 식별한 주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돌아가서 여기에 관계가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책의 이 구절에서 제안된 것입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의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어디에 두고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 시간을 보낼 가장 중요한 구절을 알려줄 것입니다. 책안의 모든 구절을 해석할 수 없다면, 이 핵심 구절들은 책 자체의 주제에 따라 해석적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구절임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위한 초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가 아니라 설교와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Trena 박사는 몇 년 전 뉴욕 시에 있는 성서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Norman Vincent Peale의 교회였던 Marble Collegiate Church에서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일련의 성경 연구를 요청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경 각 권에 한 시간씩 주셨습니다. 그럼 첫째 주 창세기 50장, 한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각각의 경우에 자신이 한 일은 범위가 제한되어 관리가 가능한 핵심 통로나 전략적 영역을 선택했지만, 각 경우에 그 핵심 통로를 활용하여 그 통로가 하나의 핵심이 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책 전체의 메시지에 참여하세요.

그러므로 그는 한 시간 안에 그 책에 있는 한두 가지 핵심 구절에 집중함으로써 각 책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곳에서 펜실베이니아 목사로 갔던 이전 학생이 있는데, 그가 돌아와서 그가 일련의 설교에서 이 일을 했으며, 연속적인 일요일에 성경의 여러 책에 대한 전체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등으로 다시 설교함으로써, 그의 본문인 하나의 전략적인 구절을 택하고, 그것이 실제로 전체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교했습니다. 도서 조사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다섯 번째 일은 더 높은 비평 데이터, 즉 학자들이 비평적 서론이라고 부르는 문제와 관련된 책 자체 내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 글을 쓴 장소와 날짜, 받는 사람, 글을 쓴 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책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의미심장할 수 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2차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단순히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작가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 책을 집필한 계기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본문 자체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책 자체 내에서 발견된 데이터를 숙지하고 2차 출처로 이동하여 학자들이 책의 배경에 대해 말하는 내용,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였는지 읽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던지, 이런 논의를 해보면 훨씬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특정 학자가 저자나 청중에 관해 특정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데이터가 책 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학자가 역사적 배경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확고한 결론에 대한 잠정적인 고려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단지 책 내에서 이러한 종류의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인상은 포괄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책 전체와 관련되어 실제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A부터 E까지,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여기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서에서 아모스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모스서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내용이 네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로 관찰되어야 하고 이 시점에 적합할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룯기에는 나쁜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룯기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룯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악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와 특히 성경책에 있어서는 다소 특이한 일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바는 룻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녀 자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는 실제로 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서 조사에 있어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위대한 연설이나 다섯 가지 위대한 설교가 있는데, 각 설교는 공식의 형식으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나 그와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책 조사에서 언급해야 할 종류가 반드시 앞선 영역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실제로 일종의 샘플로서 도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유다서를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유다서를 읽고 자문해 보세요. 도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즉, 어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고장의 측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유다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자신의 길을 느껴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귀납적 접근 방식에서는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연습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유다서 조사에서 우리가 한 일과 관련하여 당신이 한

일을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도서 조사, 주요 구조적 관계 및 질문입니다.